

2010년 5월 농식품 해외시장 동향

2010. 6

- 목 차 -

- 일본(도쿄 aT) -----	3
- 중국(베이징 aT) -----	16
- 미국(뉴욕 aT) -----	26
- 유럽(로테르담 aT) -----	36

해외시장동향	일본	도쿄 aT
--------	----	-------

1. 현지 시장 포커스

□ 일본 구제역 확산

- 미야자키현의 「구제역」 문제로 농림수산성의 「우돈 등 질병소위원회」는 18일, 구제역이 만연한 지역의 소나 돼지에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고 결론
- 정부는 이것을 수용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투여를 시작할 것임. 살처분 후 묻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 확대를 지연시키는 것이 목적. 매장지 확보가 준비된 단계에서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실상 전부 살처분 예정
- 우선, 발생지역 카와나미초에서 실시하고, 그 외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과제
-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철저한 소독이 최선의 감염 방지책이었으나, 정부 내에서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폭발적인 감염확대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며 전두검사, 살처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위원회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테라몬 위원장 대리는 백신투여는 시간별기라고 설명. 현재로서는 살처분 후에 묻을 토지가 부족하고, 매장에 시간이 걸리며 체내에 배양된 바이러스 확산가능성 때문에 증상을 가볍게 하는 백신 투여에 따라 감염확대를 늦춘다는 방침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8일 현재 살처분 대상은 약 11만8천두. 이 중 지금까지 살처분 및 매장 완료료 확인한 것은 약 2만7천두

- 요미우리신문 5. 19

□ 일본 '09년 화훼도매 매상고, 과거 10년 중 최저

- 2009년 화훼도매회사의 매상고가 4050억 엔으로 전년보다 3.7% 줄어든 사실이 일본 화훼도매시장협회의 조사에서 밝혀졌음. 2년 연속 감소를 보임으로써 화훼도매 전체 매상고는 2000년 이후 최저치를 보임. 불황이 길어지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 소비자들의 절약성향 강화가 영향을 끼침
- 조사대상은 동 협회에 가맹된 중앙, 지방 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화훼도매업체 143개이며, 매상고 상위 10개사 중 매출이 증가한 회사는 관련그룹회사를 흡수한 도요아케화훼(아이치현) 뿐이었음. 그러나 동 회사도 본업인 분재판매는 전년보다 감소됨
- 상위 100개사 중 매출 증가 회사는 27개사로 작년보다 25개사가 늘어났음. 특히 규슈지방의 매출증가가 눈에 띄었는데 시장관계자는 폐업한 도매회사의 물량이 더해져 취급금액을 늘린 도매업체가 있었다고 규슈지방 도매회사 간부가 밝혔음. 또한 화훼도매가 도태시대에 들어갔다고 보는 의견도 있음
- 부문별로 보면 절화가 2818억 엔으로 전년대비 3% 감소하였고, 상위 5개사는 오타화훼, 나니와꽃시장, 플라워옥션재팬(FAJ), 세타가야화훼, 다이이치화훼 순임. 분재는 1,094억엔으로 6% 감소하였고, 상위 5개사는 도요아케화훼, FAJ, 고우노스화훼, 사이타마원예시장, 도쿄키누타화훼 순이었음
- 동 협회 히구치 리이치 회장(동일본 이타바시화훼 사장)은, 경기불황으로 소비자의 구매의욕이 약해진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였음. '09년을 기준으로 바닥을 쳤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낙관은 할 수 없다고 하며 화훼 도매업체가 총력을 기울여 소비확대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일본농업신문 5.22

2. 일본의 현지 유통시장 동향

□ 주요도매시장 채소류 동향 (2010년 5월 상순)

(단위 : 톤, 천엔, 엔/kg, %)

구분	주요도매시장 합계			전년 동기 대비	
	도매수량	도매가격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채소 총계	95,717	22,688,396	237	106	108
무	7,158	646,131	90	109	106
당근	5,951	719,834	121	119	89
배추	6,443	569,160	88	123	92
양배추	13,697	1,436,567	105	120	73
시금치	1,059	499,390	471	113	98
파	2,200	931,940	424	94	112
부추	541	251,448	465	92	158
아스파라거스	451	568,930	1,262	88	107
(수입산)	84	68,975	818	168	96
브로콜리	1,383	453,014	328	168	75
(수입산)	166	57,953	349	101	116
양상추	5,087	1,410,787	277	94	173
오이	6,264	1,166,863	186	107	99
단호박	2,193	426,148	194	95	119
(수입산)	1,843	278,717	151	96	123
가지	3,265	1,149,190	352	109	116
토마토	5,522	1,821,660	330	124	93
미니토마토	1,207	773,188	640	133	115
피망	1,559	882,430	566	88	155
파리고추	100	119,078	1,188	101	104
풋콩	86	56,956	666	130	71
감자	7,054	1,257,667	178	87	129
양파	10,270	1,252,399	122	102	136
(수입산)	544	58,258	107	255	111
마늘	239	130,491	546	83	97
(수입산)	116	25,679	221	86	157
표고버섯	547	462,722	846	108	94
(수입산)	31	11,649	373	102	105
팽이버섯	628	204,327	326	88	154
(수입산 야채총계)	3,764	827,470	220	109	116

□ 주요도매시장 과일류 동향 (2010년 5월 상순)

(단위 : 톤, 천엔, 엔/kg, %)

구분	주요도매시장			전년 동월대비	
	도매수량	도매금액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과실 총계	24,317	8,304,204	341	98	103
국산과실 합계	16,083	6,743,650	419	98	106
밀감	83	125,599	1,515	136	95
아마나츠 밀감	1,449	202,302	140	97	94
기타 밀감	2,281	688,050	302	117	103
사과 합계	3,019	945,957	313	81	125
(츠가루)	-	-	-	-	-
(조나골드)	451	137,694	306	82	118
(왕림)	495	140,558	284	82	121
(후지)	2,010	648,680	323	81	128
일본 배 합계	-	-	-	-	-
(풍수)	-	-	-	-	-
(이십세기)	-	-	-	-	-
(신고)	-	-	-	-	-
감 합계	-	-	-	-	-
(단감)	-	-	-	-	-
(맹감)	-	-	-	-	-
매실	1	935	753	48	126
포도 합계	56	130,578	2,334	88	103
(거봉)	9				

3.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 농림수산물 수입개요

- 10년 1-3 농림수산물 수입액 : 1조6,010억엔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
 - 국가전체 수입액(14조3,728억 엔)의 약 11.1%점유
 - 비중별: 농산물(8,441억 엔, 52.7%) > 수산물(2,793억 엔, 18.4%)
축산물(2,732억 엔, 17.1%) > 임산물(2,036억 엔, 12.7%) 순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실적(금액기준)>

(단위: 천엔, %)

구 분	2010년1-3월		전년 동기 대비	2009년1-3월
	금액	점유비		
국가 전체	14,372,830,648	-	18.8	12,093,690,597
농림수산물	1,600,983,733	100.0	-1.2	1,620,978,695
농 산 물	844,147,673	52.7	1.8	829,514,576
축 산 물	273,159,062	17.1	-6.9	293,396,082
임 산 물	203,647,244	12.7	-1.6	206,885,953
수 산 물	279,325,926	17.4	-3.9	290,679,844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성 무역통계

□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입동향(1~3월 금액누계)

(단위 : 천엔, %)

품목	1~3월 누계	전년 동기	전년 동기 대비	1위		2위		3위	
	금액	금액	비율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멜론	801,780	867,675	-7.6	멕시코	748,188	뉴질랜드	31,827	한국	21,765
밤	315,106	298,052	5.7	중국	304,290	한국	10,816	-	-
키위	3,709	15,014	-75.3	뉴질랜드	3,434	한국	275	-	-
딸기	13,615	19,414	-29.9	한국	13,615	-	-	-	-
귤	506,422	431,698	17.3	미국	505,437	한국	985	-	-
매실 (조제품)	584,075	451,951	29.2	중국	581,518	대만	1,472	한국	1,085
마늘	656,144	360,523	82.0	중국	643,969	아르헨티나	6,997	한국	5,178
결구양배추	166,280	189,706	-12.3	한국	74,122	중국	63,871	대만	27,882
오이	4,661	7,592	-38.6	한국	4,661	-	-	-	-
가지	8,581	23,683	-63.8	한국	8,581	-	-	-	-
피망 속	2,255,091	2,156,270	4.6	한국	1,327,523	뉴질랜드	917,828	오만	6,283
파프리카	2,158,275	2,064,559	4.5	한국	1,230,707	뉴질랜드	917,828	오만	6,283
건 표고	1,527,039	1,203,364	26.9	중국	1,469,587	한국	56,925	홍콩	301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성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09년도) 수입액

- '10년도 1-3월의 일본국가전체 수입액(14조3,728억 엔)중에서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1조 6,010억 엔으로 수입액 전체의 약 11.1%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 토마토의 수입동향

- 3월 수입수량은 582톤으로 전년 동월 비 437톤(302%) 증가함
수입금액은 2억 71백만 엔, 1kg당 평균 CIF가격은 466엔으로 전년 동월보다 175엔 상승함
주요수입국 비율은 멕시코 54%, 뉴질랜드 17%, 미국 17%, 한국이 12%로 나타남
- 3월까지의 수입수량은 1,252톤(전년 동기 비 361%), 수입액은 5억 9백만 엔(동 520%)으로 나타남
 - 작년도 동기는 잔류농약 검출로 수입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금년도 수입회복
 - 한국산 토마토는 대부분 신선형태로 수입되며, 일본의 안전성강화, 국내 수요증가 등에 따라 감소경향
 - 수입실적 : ('09.1~3) : 221,237천엔 → ('10.동기) : 74,454천엔(66.3%↓)

□ 가지의 수입동향

- 3월의 수입물량은 3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24톤(90%)감소하였음. 수입금액은 1백만 엔, 1kg당 평균 CIF가격은 248엔으로 전년 동월을 11엔 감소하였으며, 수입국은 한국뿐임
- 3월까지의 수입물량은 34톤(전년 동기 비 37%), 수입금액은 9백만 엔(동 36%)으로 나타남
 - 한국산 가지는 일본의 안전성강화, 일본의 야채 소비량 감소에 등으로 점진적으로 수입 감소경향
 - 수출실적 : ('09.1~3) : 59,306천엔 → ('10.동기) : 8,581천엔(85.5%↓)

□ 파프리카 수입동향

- 3월의 수입량은 1,858톤으로 전년 동월 비 90톤(5%) 감소하였음. 수입액은 7억12백만엔, 1kg당 평균 CIF가격은 383엔으로 나타나 전년 동월보다 26엔 감소함.
주요수입국은 한국이 73%, 뉴질랜드가 27%로 나타남
- 3월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주요수입국 비율은 한국 73%, 뉴질랜드이 26%, 화란 1%, 4월은 한국산 47%, 뉴질랜드 29%, 화란 23%, 미국 1%로 나타남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2010년 3월 ~ 4월의 외국산 입하 상황>

구분	'10년 3월			'10년 4월		
	상	상	상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84	107	68	75	54	64
일본산 등 입하량(톤)	25	28	25	22	19	26
외국산도매가격(엔/kg)	522	485	572	639	750	873
평균도매가격(엔/kg)	561	526	634	699	807	895

- 3월까지의 수입물량은 4,724톤(전년 동기 비 101%), 수입액은 21억58백만엔(동105%)임
 - 한국산 파프리카는 동절기 파프리카 일조량 부족에 따른 물량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다소 하락
 - 수입실적 : ('09.1~3) : 1,255백만엔 → ('10.동기) : 1,230백만엔(2.0%↓)

□ 딸기 수입동향

- 3월 수입량은 7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57% 감소. 수입액은 4백만 엔, 1kg당 평균 CIF가격은 583엔으로 전년 동월보다 90엔 상승함. 주수입국 비율은 모두 한국임
 - 한국산 딸기는 주로 케익 장식용, 후식용으로 사용되나 일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전년 동기대비 다소 수입하락
 - 수입실적 : ('09.1~3) : 19,414천엔 → ('10.동기) : 13,615천엔(29.9%↓)

□ 양배추 등 유채 속 야채

- 3월 수입량은 2,956톤으로(양배추: 2,929톤, 기타 유채 속: 27톤) 전년 동월 비 1,647톤 (26%) 감소하였음. 수입액은 1억 7백만 엔, 1kg당 평균 CIF가격은 36엔으로(양배추: 35, 기타 유채 속: 228) 나타나 전년 동월 비 1엔 하락함. 양배추의 주수입국 비율은 중국이 56%, 한국 27%, 대만 16%임
- 식물검역 통계에 의하면 양배추의 4월 검사실적수량은 2,898톤(전년 동월 비 266%)으로 나타남
4월의 주수입국 비율은 중국59%, 한국이 28%, 대만 13%로 나타남
- 배추의 수입식물 검역검사 동향
식물검역통계에 의하면 4월 검사실적수량은 0.9톤(전년 동월 비 242%)으로 나타남
주요 수입국 비율은 중국 90%, 한국 10%로 나타남
- 양배추 등 유채속의 3월까지의 수입수량은 4,786톤으로(전년 동기대비 77%), 수입액은 1억 82백만 엔(동 86%)으로 나타남

□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동향(1~3월 금액누계)

(단위 : 천엔, %)

품목	1~3월 누계	전년 동기	전년 동기 대비	1위		2위		3위	
	금액	금액	비율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계육 조제품	26,407,898	30,779,958	-14.2	태국	14,652,676	중국	11,542,080	한국	113,482
정제당	172,782	78,871	119.1	브라질	123,990	한국	35,110	프랑스	8,156
츄잉껌	30,682	35,994	-14.8	중국	9,361	한국	8,038	대만	5,308
쿠키, 비스킷 크래커	1,605,227	1,328,025	20.9	미국	268,829	한국	151,676	말레이 시아	126,890
코코아 조제품	538,235	436,029	23.4	싱가폴	386,779	한국	93,558	말레이 시아	38,707
알콜음료	33,824,813	35,629,063	-5.1	프랑스	12,451,148	한국	3,680,391	미국	3,269,460
쇼트닝	60,996	48,655	25.4	말레이 시아	42,596	한국	13,372	인도네 시아	5,028
조제 식료품	20,657,238	20,751,456	-0.5	미국	5,141,892	중국	2,629,522	한국	2,520,298
곤약	562,228	599,885	-6.3	중국	504,787	인도네 시아	29,247	한국	28,194
인삼	483,264	360,945	33.9	중국	468,716	대만	12,183	한국	2,122

□ 가공식품의 수입동향(10.3월)

- 가공식품(종합)의 3월 수입수량 지수는 84.8로 전년 동월 대비 △2.2%로 다소 감소함.
가공식품(주류 제외)은 80.8로 전년 동월 대비 △2.2%로 다소 감소함
- 가공식품(종합)의 3월 수입액은 944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로 상당히 감소
하였고, 주류를 제외한 가공식품은 808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로 역시
상당히 감소하였음
- 부문별로 보면 음료가 16% 이상, 수산가공품이 11~16%, 축산가공품, 제곡분가공품,
기타 조제식료품이 6~11% 감소하였으며 주류가 3~6% 미만, 설탕류 1~3% 감소
하였음

□ 일본 절임류 및 김치 생산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년	2010년 3월
절임류	1,176	1,186	1,184	1,131	1,032	972	974	956	950	910	214
김치 (%)	320 (27.2)	351 (29.6)	386 (32.6)	379 (33.6)	313 (30.3)	284 (29.2)	252 (25.8)	243 (25.4)	237 (24.9)	209 (23.0)	50 (23.4)

자료: (사)식품수급연구센터

□ 일본 절임류 품목별 생산량

(단위: 톤)

품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	증감율
절임류전체	1,032,877	972,947	974,809	956,836	950,164	910,051	214,056	-2.4
소금절임류	149,450	129,279	146,827	135,871	130,707	132,068	29,761	-3.0
초절임류	105,372	94,359	102,450	99,549	100,083	99,190	21,873	-1.1
아사즈케류	148,031	149,082	154,470	158,010	155,478	155,672	37,427	2.9
쌀겨절임류	74,440	73,536	80,236	81,094	85,151	82,978	20,109	0.6
간장절임류 (김치)	496,491 (313,410)	466,037 (284,914)	433,302 (252,123)	425,309 (243,028)	423,467 (237,937)	389,857 (209,235)	94,177 50,082	-5.2 -7.9
주박								

□ 일본의 김치 시장규모

(단위 : 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 3
합계	316,067	274,749	265,113	261,001	233,358	58,644
일본산	284,914	252,123	243,028	237,937	209,235	50,082
한국산	31,153	22,626	22,085	23,064	24,123	8,562
타국산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자료: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일본 재무성 통계자료

* 세번 2005.99-919, 2005.99-999는 기타 절임류로서 한국산은 대부분 김치이나, 타국산은 김치의 다량의 기타절임류 포함되어 있어 통계상 타국산 순수 김치시장 규모 추정곤란

□ 한국산 김치 수입실적

(단위: 톤, 백만엔, 엔/kg)

연도	수입량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입단가
1997	10,826	7.9	4,580	11.0	423
1998	15,015	38.7	5,576	21.7	371
1999	23,905	59.2	8,931	60.2	374
2000	22,260	-6.9	8,410	-5.8	378
2001	22,197	-0.3	8,092	-3.8	365
2002	27,351	23.2	9,486	17.2	347
2003	30,854	12.8	10,349	9.1	335
2004	32,202	4.4	10,435	0.8	324
2005	31,153	-3.3	9,817	-5.9	315
2006	22,626	-27.3	7,468	-23.9	330
2007	22,085	-2.3	7,522	0.7	340
2008	23,064	4.4	7,940	5.5	344
2009	24,123	4.6	7,530	-5.2	312
2010년1-3월	8,562		2,676		312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주의: 순수 한국식 김치의 수입통계는 세분되고 있지 않아 세번 2005.99-919, 2005.99-999를 합산하여 만든 수치임

□ 일본의 절임류(김치포함) 수입동향

(단위 : 톤, 백만엔)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33,661	26,308	113,433	22,455	120,616	21,709	43,109	7,777
한국	22,085	7,522	23,064	7,940	24,123	7,530	8,562	2,676
기타국	111,576	18,786	90,369	14,515	96,493	14,179	34,547	5,101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4. 경제동향

□ 경기동향

- 경기는 착실히 회복되고는 있으나 자율성이 부족하고 실업률이 고 수준에 있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기업수익은 개선되고 있음.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음
 - 기업 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의 기업전망은 신중한 견해가 많음
 - 고용정세는 여전히 어려우나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개인소비는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물가동향을 종합해 보면 완만한 디플레 상황에 있음
- 향후전망 : 당분간 어려운 고용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기업수익이 향상되는 가운데 해외경제의 개선과 긴급경제대책의 효과 등을 배경으로 경기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경기하락 염려, 금융자본시장의 변동, 디플레 영향 등, 경기를 하락시키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용정세의 악화우려에도 주의가 필요함

□ 정책동향

- 일본정부는 가계의 지원으로 개인소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서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여 일본경제를 자율적인 회복궤도에 올려 내수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도록 정책운영을 실시

□ 소비·투자 등 수요동향

- 개인소비는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설비투자 감소가 둔화되고 있음
- 주택건설은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공공투자는 최근 약해질 조짐이 보이고 있음
-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수입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 서비스 수지흑자는 보합세를 보임

□ 기업 활동과 고용정세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기업수익 및 기업의 업황판단은 개선되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에서는 신중한 견해가 많음. 도산건수는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 고용정세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물가와 금융정세

- 국내 기업물가는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다소 하락이 계속되고 있음
- 주가는 10,900엔대부터 11,200엔대까지 상승한 후 10,000엔대까지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엔/달러 환율은 92엔대에서 94엔대까지 엔화 가치하락 기조로 이동하였다가 91엔까지 엔화 가치상승 추이를 보임

자료: 2010년 5월24일 내각 부 발표

해외시장동향

중국

베이징 aT

1. 현지 시장 포커스

□ 중국 농산물 가격상승, 투기자본과 연관돼

올해 들어 농산물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녹두는 구정 전 도매가격은 500g당 5-6위안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0위안으로 상승함. 작년 동기 가격과 비교할 때 가격이 3-4배 상승한 셈이며 일부 시장에서는 녹두 공급이 끊어지는 상황도 발생했음

올해 중국 서남부의 보기 드문 가뭄으로 녹두 등 농산물의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님. 일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녹두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기후이상, 정부정책과 투기활동의 3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규모의 유동자본이 농산물시장에 투입돼 높은 투기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 서남 가뭄 등에 따라 일부 도매상들이 미리 녹두, 참쌀 등을 대량으로 구매해 비축하여 6개월만에 도매상들이 쉽게 수백만 위안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남. 현재 중국 내 농산물 가격상승 원인으로 자본의 힘을 주의해 보아야 할 것임

현재 중국 내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와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막대한 자본이 남아돌아 3~4천억 위안에 이르는 유희자본이 잠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감소 상황에서 농산물이 투기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작년 신종플루 유행 시 대규모 자본이 마늘 투기에 사용됐으며 가격이 수배로 상승한바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가격이 상승 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들어 중국 농산물 시장의 유통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시장요소의 농업생산에 대한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 농업대국으로서 중국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추진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본시장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음

표면적으로 보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농민들의 수입증가와 농산물 재배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기는 것은 투기자본으로서 서민들의 생활의 질과 밀접히 연관된 농산물의 가격상승에 대해 주목하고 투기자본의 영향을 차단시키는데 정부가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시장동향

□ 양곡가격 상승으로 종자산업 등 상위 연관 산업의 기업 이익 커

올해 들어 서남지역의 가뭄과 남방지역의 폭우 등 자연재해로 중국의 농산물 생산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마늘, 녹두가격의 대폭 상승과 함께 옥수수 가격도 상승세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중국의 곡물 주요생산지의 벼, 밀, 옥수수의 평균 구매가격은 전년대비 12.6% 상승하였고 2/4분기에도 양곡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

양곡 가격의 상승으로 종자, 농약, 농기계 등 상류기업¹⁾이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재배업과 목축업이 다음으로 수익이 크고 농산물 가공 등 하류기업의 수익이 가장 적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

특히 종자산업의 수익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며 원인은 종자 수요는 재배면적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바 양곡 가격의 상승은 파종면적의 안정된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종자 수요가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임

□ 도매시장동향

<2010. 4월 중국 과일 도매현황>

(단위: 톤, 만 위안, 위안/kg, %)

구분	신발지도매시장			전년동기대비 %	
	도매수량	도매금액	평균가	도매수량	도매금액
부사사과	131,240	45,865.4	3.49	38.9↑	5.4↑
압리(鴨梨) ²⁾	8,330	1,650.5	1.98	63.3↑	87.5↑
바나나	9,050	4,556.6	5.03	6.9↓	2.9↑
딸 기	3,010	3,143	10.4	37.2↑	44.9↑
거봉포도	-	-	-	-	-

1) 기업의 영업활동 가운데 제품과 용역생산의 첫 단계에서의 활동 또는 수익을 지칭하여, 석유회사의 경우를 예들 들면 원유의 탐사와 생산은 상류(upstream)기업의 활동이고 정유 및 제품의 판매와 수송은 하류기업의 활동

2) 배의 일종

<2010. 4월 중국 채소 도매현황>

(단위: 톤, 만위안, 위안/kg, %)

구분	신발지도매시장			전년동기대비 %	
	도매수량	도매금액	평균가	도매수량	도매금액
배추	17,510	3,750.4	2.14	1.8↑	26.8↑
당근	21,030	2,252.93	1.07	109.7↑	41.3↑
오이	13,870	3,871	2.79	1.5↓	72↑
고추	6,210	2,474.4	3.98	30.2↓	34.5↓
양파	25,360	5,010.7	1.98	13.3↑	42.1↓
생강	5,200	3,602.2	6.9	19.1↓	139.6↑
마늘	7,580	6,892.2	9.09	42.8↓	964↑
팽이버섯	660	503	7.62	340↑	383 ↑
파프리카	101	111	11	-	-

(자료원: 베이징신발지도매시장)

3. 수출입동향

□ 수출입 동향 개요

2010년 4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37.0억 달러로 전월대비 1.6억 달러 증가하여 4.6%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

2010년 1~4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139.0억 달러로 동기대비 20.8% 증가

2010년 4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57.1억 달러로 전월대비 1.1억 달러 감소하여 1.8%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31.6% 증가

2010년 1~4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207.7억 달러로 동기대비 42.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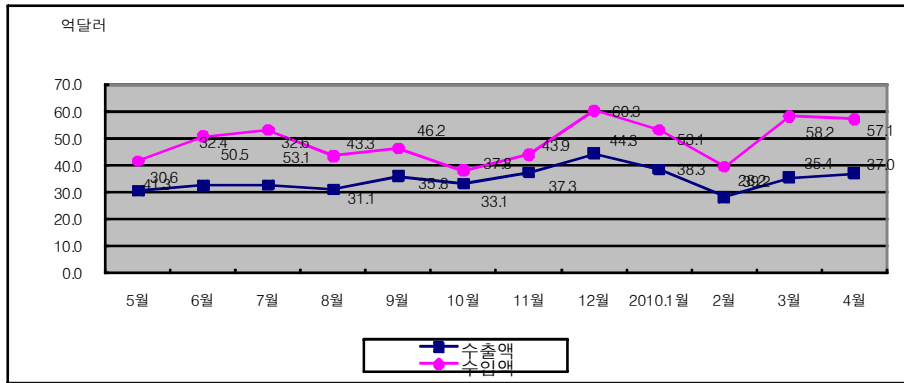
< 2010. 4월 중국 농산물 수출입현황 >

(단위 : 억달러)

구 분	4월 당월		1~4월 누계	
	금 액	전년동기대비(%)	금 액	전년동기대비(%)
◦ 수 출 액	37.0	17.5	139.0	20.8
◦ 수 입 액	57.1	31.6	207.7	42.9
□ 무역수지	-20.1	-	-68.7	-

자료원 :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통계

< 중국의 월별 농산물 수출입 추이 >



□ 농산물 부류별 수입현황

(단위 : 만달러)

품목부류	4월누계			품목부류	4월누계		
	2009	2010	증감		2009	2010	증감
산동물	3,417	8,498	148.7	동식물유지 등	178,499	243,241	36.3
축산육류 및 잡육	22,610	26,663	17.9	육류제품	128	109	-14.7
가금육 및 잡육	26,624	25,984	-2.4	수산물제품	1,840	2,026	10.1
수, 해산물	102,636	136,074	32.6	당류제품	18,207	11,108	-39.0
유제품, 난류, 꿀 등	35,744	64,521	80.5	코코아, 그제품	3,966	9,794	147.0
기타 동물산품	9,417	9,521	1.1	곡물, 전분제품 등	28,267	33,912	20.0
산식물 및 화훼	2,522	2,416	-4.2	채소, 과일, 견과제품	10,017	12,258	22.4
식용채소	29,526	61,530	108.4	기타식품	12,962	19,239	48.4
식용과실 및 견과	50,746	67,836	33.7	음료, 술 및 식초	27,414	41,184	50.2
커피, 차, 조미향료	2,573	3,946	53.3	식품공업 잔류물	50,233	91,557	82.3
곡 물	26,659	37,999	42.5	연초 및 그제품	24,485	16,759	-31.6
제분공업제품	7,365	14,638	98.7	기타농산물	162,028	372,462	129.9
유료, 벱질, 사료 등	609,471	751,392	23.3	가금류제품	29,668	29,391	-0.9
식물액, 즙	3,822	4,124	7.9	축산제품	158,621	247,239	55.9
편직용 식물재료	1,842	7,909	329.5	-			

□ 주요 농산물의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만불)

구 분	2009 1~4월	2010 1~4월	증감(%)
○ 과실 및 견과	47,478	65,548	38.1
- 칠 레	8,725	14,875	70.5
- 태 국	10,579	13,645	29.0
- 베 트 남	10,065	10,779	7.1
○ 당 류	15,459	7,450	-51.8
- 쿠 바	6,855	4,571	-33.3
- 한 국	1,439	2,443	69.8
- 태 국	1,273	147	-88.5
○ 대 두	553,027	689,525	24.7
- 미 국	411,780	583,863	41.8
- 캐 나 다	5,249	1,866	-64.5
- 브 라 질	83,058	103,797	25.0
○ 벼 와 쌀	6,609	9,012	36.3
- 태 국	6,553	8,854	35.1
- 라 오 스	33	64	96.1
- 베 트 남	12	70	479.0
○ 면 화	53,606	202,449	277.7
- 인 도	6,949	83,294	1,098.5
- 미 국	31,728	65,908	107.7
- 우즈베키스탄	7,816	25,489	226.1
○ 냉동어류	76,685	100,519	31.1

□ 한국산 수입동향

◦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품목	중국 총수입액		한국산 수입액		기타국별 수입액('10.3누계)		
	'09.3누계	'10.3누계	'09.3누계	'10.3누계			
자당	9,695	17,391	8,107	17,293	태국 (700)	호주 (288)	영국 (174)
채소종자	12,586	20,657	359	464	일본 (3,333)	미국 (3,642)	덴마크 (1,847)
기타베이커리제품	6,648	8,772	3,036	4,085	인도네시아 (2,015)	대만 (1,887)	말레이시아 (865)
라면	1,884	2,369	6,444	8,243	홍콩 (715)	일본 (375)	대만 (173)
맥주	7,631	8,945	531	441	멕시코 (1,167)	독일 (2,993)	프랑스 (1,375)
소주	2,660	2,938	913	1,120	대만 (327)	일본 (1,272)	호주 (110)
홍삼	1,501	1,686	776	1,454	북한 230	-	-
간장	1,821	3,505	344	407	일본 (2,311)	대만 (335)	싱가포르 (346)
팽이버섯	869	742	2,386	1,075	대만 (47)	-	-

※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 시 해관에 타 HS 코드로 신고하여 한국수출실적보다 적음

◦ 증감사유 분석 및 전망

- 자 당 : (2009.3) 8,107천불 → (2010.3) 17,293천불 (113.3%증가)

• 2010년 3월까지 중국의 한국산 자당 수입량은 24,699톤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9.4% 증가하였고 자당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13.3% 대폭 증가함

- 채소종자 : (2009.3) 359천불 → (2010.3) 464천불 (29.1% 증가)

• 한국산 채소종자는 우수한 품질로 중국에서 수요량이 많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당근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과 함께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베이커리제품 : (2009.3) 3,036천불 → (2010.3) 4,085천불(34.5% 증가)

• 2010년 3월까지 한국산 베이커리제품의 수입액은 4,085천불로 지난 동기대비 34.5% 증가함

• 한국산 베이커리 제품은 우수한 포장과 품질로 현지인들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가격 또한 현지산과 크게 차이가 없어 향후 상당기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과거 한국 유학생과 교민 위주의 판매에서 대형유통매장으로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현지인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라 면 : (2009.3) 6,444천불 → (2010.3) 8,243천불 (27.9%증가)

• 2010년 3월까지 한국산 라면의 수입액은 8,243천불로 동기대비 27.9% 증가함

• 현지 생산 농심(한국독자기업)의 신라면 계열제품은 중국에서의 대폭적인 홍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으며 기타 중국산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한국산 수입라면은 현지산과 약간의 맛 차이가 있고 주로 교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현지진출 교민수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 맥 주 : (2009.3) 531천불 → (2010.3) 441천불 (17%감소)

• 한국산 맥주는 중국산 맥주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이며 기타 수입산 맥주와 비교 시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들이 찾는 경우가 극히 드물음

- 특히 기타 수입산 맥주들은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나이트, 바, 술집 등 주류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있는 반면 한국산 맥주는 주로 한국식당 및 한국술집 등 한국계 요식업소에서 제한되어 있음

- 소 주 : (2009.3) 913천불 → (2010.3) 1,120천불 (22.7% 증가)

- 한류, 한국드라마 영향으로 한국식당을 찾는 중국인들이 많아지고 소주를 한국의 대표 술로 인지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현지인들의 소비량은 증가 추세이나 아직 주요 소비층은 현지 교민과 교포로 이루어짐

- 홍 삼 : (2009.3) 776천불 → (2010.3) 1,454천불 (87.3% 증가)

- 한국산 홍삼은 현지에서 고려홍삼으로 홍삼의 최고급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지도 또한 높은 편으로 소비량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단 중국 식약국에서 홍삼을 약재로 분류하고 6년근 기준만 제시되어 있어 매년 수입약재등록신청을 통하여 6년근만 수입이 가능해 중국 수출 대폭 확대가 어려움

- 아울러 절편 등 기초가공을 거쳐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 수입약재등록의 제한 없이 상시 수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야함

- 간 장 : (2009.3) 344천불 → (2010.3) 407천불 (18.6% 증가)

- 현지인은 수입산 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 또한 우수한 자국산 유명 브랜드 제품의 간장을 선호하며 수입품으로는 일식당을 통하여 많이 알려진 일본산이 강세임

- 한국산은 대형 유통매장 입점을 통해 활발한 마케팅을 하고 있으나 저가 중국산과 고가 일본산 사이에서 영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팡이버섯 : (2009.3) 2,386천불 → (2010.3) 1,075천불 (54.9% 감소)

- 2010년 3월 팡이버섯 수입량은 1,075천불로 지난 동기대비 54.9% 대폭 감소함

- 중국의 팡이버섯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중국내 판매가격 하락

4. 경제전망

□ 중국 4월까지 수출입총액 8,559.9억 달러, 전년대비 42.7% 증가

2010년 4월까지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8,559.9억 달러로 전년대비 42.7% 증가. 그중 수출액은 4,360.5억 달러로 29.2%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4,199.4억 달러로 60.1% 증가하여 161.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냄

2010년 4월 수출입 총액은 2381.6억 달러로 동기대비 39.4% 증가. 그중 수출액은 1199.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182.4억달러로 49.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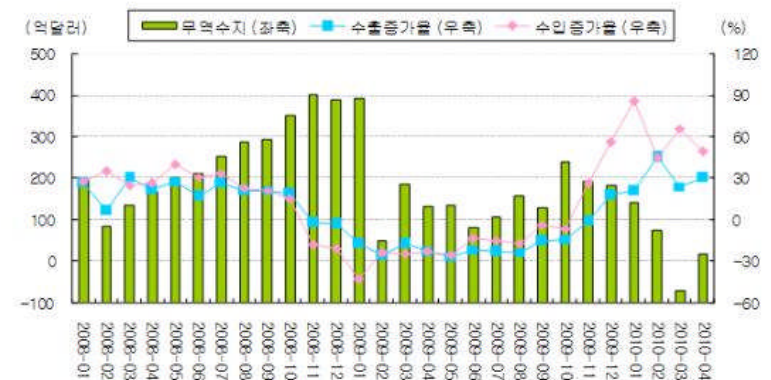
<2010. 4월 중국수출입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4월 당월		1-4월 누계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 수출입총액	2,381.6	39.4	8,559.9	42.7
수 출 액	1,199.2	30.5	4,360.5	29.2
수 입 액	1,182.4	49.7	4,199.4	60.1
□ 무 역 수 지	16.8		161.1	

자료원: 중국상무부

도표1: 2008-2010.4 중국 수출입 상황



□ 중국 요식업 100대 업체 연매출액 1,200억 초과

- 2009년 중국 요식업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이 1,200억 위안을 초과해 전년대비 22.6% 상승. 중국내 요식업체 1위 기업은 KFC와 피자헛을 보유하고 있는 백승찬음(百勝餐飲)그룹이 재차 1위를 차지함
- 2009년 중국내 100대 요식업체의 매출액은 중국내 요식업체 전체 매출액의 6.9%를 차지해 전년대비 0.3%p 상승. 비록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2009년 중국 요식업의 매출액 증가가 전반적으로 완화됐지만 100대 요식업체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2.6% 증가했으며 증가속도는 전년대비 20.1%p 높았는데 이는 2005년 이래의 최고 수준
- 2009년 중국내 100대 요식업체의 평균이윤율은 10.43%로 전년도 수준보다 낮은 것임. 중국요리협회측은 작년 중국 요식업체의 원가상승률이 매출증가율보다 높았던 것으로 요인 분석. 동시에 광고비용 지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요리협회측은 중국요식업계가 저 이윤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힘

□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기대비 2.8% 상승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대비 2.8% 상승. 그중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2.7% 상승하고 농촌 소비자물가지수가 3.0% 상승
- 품목별로 보면 식품류 가격이 5.9% 상승하였고 담배, 술 및 관련 제품 가격이 1.7% 상승하였으며, 의복류 가격이 1.3% 하락
- 가정용 설비용품 및 가공정비서비스 가격이 0.5% 하락하였고,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류가 2.8% 상승하였으며 교통 및 통신비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가격이 0.4% 상승하였고 주거비 가격이 4.5% 상승
- 1-4월 누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4% 상승

해외시장동향	미국	뉴욕 aT
--------	----	-------

1. 현장 시장 포커스

□ 미국 실온조리식품 직장인들에게 인기

- 간편하고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점심을 찾는 직장인들을 위한 조리식품이 기존 냉동식품이 아닌 실온 조리식품으로 등장하여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
- 실온조리식품은 냉동에 보관하는 조리식품과 달리 상온에 보관할 수 있고 도시락을 가져가야 하는 직장인들이 따로 냉동포장용기나 도시락가방에 싸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있음. 지난해 경기침체로 직장인들이 외식보다는 집에서의 식사를 선호하면서 미국의 대형식품가공업체들은 속속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음
- 도매업체들은 과거에 실온조리식품이 셰프 보야디(Chef Boyardee)나 캠펬스프 정도 수준으로 6가지 정도였는데 반해 최근 들어 25가지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가격도 저렴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함. 올해 3월 21일까지 실온조리식품은 연간 13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0.9%의 성장률을 보임. 현재 실온조리식품을 출시하여 경쟁하는 업체들은 Hormel Compleats, Chef Boyardee, Healthy Choice Fresh Mixers, Marie Callender's Home Style Creations, Ronzoni Bistro, Del Monte Harvest Selections, Dinty Moore Big Bowls들로 주로 육류와 야채를 곁들인 15온즈 사이즈의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겨있음
- 미국 유기농 과채류소비 10년 전에 비해 3배로 성장
 - 유기농무역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에서 2009년 유기농과채류의 소비가 10년 전에 비해 3배로 성장, 총 9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유기농과채류의 매출은 신선과채류의 11.4%이며, 2008년의 9.8%에 비해 점유율이 상승하고 2000년부터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2000년 유기농 과채류의 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했으며, 작년 유기농 농산물은 유기농 식품 매출 전체의 38%임
 - 유기농무역협회 대변인인 바바라 하우스만은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유기농식품을 신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유기농식품은 일반식품을 포함한 식품 총매출의 3.7%를 차지하는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미 23개주 공급 로메인상추 E.Coli 대장균감염

- 식재료공급업체인 프레시웨이 푸드사가 3개주에서 50명 이상의 대장균감염환자가 발생해 급히 리콜을 실시하고 FDA와 함께 조사에 나섬. 5월 6일 자체리콜을 실시한 프레시웨이 푸드사는 아직까지 FDA가 감염규명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으나 FDA는 로메인상추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였으며 조사를 확대하기로 함
- 현재 발병자를 일으킨 대장균은 원인규명이 쉽지 않아 우선적으로 유마(Yuma)농장에서 수확한 로메인을 중심으로 공급업체까지 조사를 실시 중임.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들은 대부분 뉴욕주 학생으로 15세와 17세환자 중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발전된 케이스도 발견됨.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요식업체에 판매된 로메인은 리콜상태로 일반식품점에서 판매되는 포장된 로메인은 리콜에서 제외

□ 미국내 수요증가로 감귤류 생산량 급증

- 미국 오렌지가 2009~2010년 8.2백만 톤이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보다 약 10%감소한 물량을 나타냈다고 미농무성이 발표
- 미농무성은 통계서비스국은 복숭아류의 생산량은 2009년 349천톤에서 2010년 365천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오렌지와 복숭아는 수확량에서 다른 양상을 보임. 플로리다 오렌지의 경우 올해 5.9백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동기 대비 19%하락이 예상되고, 캘리포니아 오렌지의 경우 지난해 1.7백만 톤에서 2.2백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자몽생산량은 2009~2010년까지 1.2백만 톤으로 지난해 1.3백만 톤에 비해 감소했으며, 탠저린, 만다린 감귤류는 지난해 443천 톤에서 572천 톤으로 29% 상승해 미국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미국 플로리다 토마토 물량 상승으로 가격 안정화

- 번덕스턴 기후로 사상 최대가격으로 급상승했던 토마토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있음. 특히, 플로리다 중부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물량은 플로리다 북부지역생산량과 맞물려 6월 초에는 충분한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반해 플로리다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는 5월 초에서 중순까지 생산되고 플로리다 중부지역에서도 같은 시기 수확예정

- 디마레(DiMare Co.)사의 부사장인 토니 디마레는 예년보다 늦어졌지만 5월 20일 정도에는 토마토 물량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힘. 대부분의 플로리다 중부지역 생산업체들은 4월 20~25일까지 수확해 5월 10일경 쯤 공급이 가능

- 미농무성이 5월 중순 보고한 25파운드짜리 박스의 토마토(등급:US.N.1, 숙성도 85%)는 5x6사이즈는 \$19.95, 6x6사이즈는 \$17.95, 6x7사이즈는 \$15.95에 각각 플로리다 남부 도매시장에서 판매됨. 이 가격은 지난 5월 4일 발표한 5x6사이즈 \$23.95, 6x6사이즈 \$21.95, 6x7사이즈 \$17.95~\$19.95에 비해 하락한 수준임

2. 시장 동향

□ 과채류 도매가격 (헌즈포인트 터미널마켓기준 2010.5.12)

(단위: US\$)

품목	사이즈	최고가격	최저가격	원산지
사과 레드딜리셔스	80개/40LB	24	14	워싱턴
사과 골든딜리셔스	80개/40LB	30	13	워싱턴
사과 그라니스미스	80개/40LB	44	26	워싱턴
사과-후지	80개/40LB	40	12	워싱턴/필라델피아
신고배	12개/10LB	14	12	캘리포니아/칠레
네이블 오렌지	88개/38LB	24	20	캘리포니아
키위	27개/1layer	8		캘리포니아
딸기	12 1-Pt	18	9	캘리포니아
레몬	140개/38LB	33	24	캘리포니아
자몽 레드	56개/34LB	13		플로리다
배추	30LB	30		캘리포니아
마늘	30LB	65	36	아르헨티나/중국
토마토	5x6/25LB	22	16	플로리다/멕시코
표고버섯	3LB	16	8.5	필라델피아
파	48Bu/13LB	14		멕시코
일본고구마	40LB	40	30	캘리포니아
파프리카	1 1/9Bushel	52	38	플로리다/멕시코
양파	50LB	14	9	뉴욕
감자	80개/50LB	13	11	아이다호

(자료:USDA)

3.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 2010년 3월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US천불, %)

구 분	2009년 3월	2010년 3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수 출 액	24,871,415	30,390,827	22.2
○ 수 입 액	20,960,556	22,622,329	7.9
□ 무역수지	3,910,859	7,768,498	98.64

자료: FAS. USDA

□ 2010년 3월 미국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US천불, %)

구 분	2009년 3월	2010년 3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농림수산제품	23,906,562	25,625,287	7
○ 소비재	11,922,175	12,897,852	8
○ 중간소비재	3,823,144	3,813,002	--
○ 1차농산물	2,988,991	3,391,974	13
○ 수산물	2,946,006	3,002,958	2
○ 임산물	2,226,246	2,519,500	13

자료: FAS. USDA

□ 주요 국가별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US천불, %)

		1	2	3	4	5
국가	미국 전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칠레	브라질
총수입액	22,622,329	5,128,544	3,745,451	1,320,806	1,094,433	773,224
전년 동기대비(%)	7.9	6.5	15.3	11.6	0.5	3.2

자료: BICO USDA

□ 2010년 3월 미국 수입 동향 분석

- '10년 3월의 미국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은 22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
 - 쌀은 2%, 차류 17%로 상승
 - 신선과일은 9%, 신선채소는 29%상승, 주스류는 -10%하락
 - 가공 과일 및 야채는 -2% 하락, 스낵류는 19%로 지속적인 상승세
 - 식물성 기름(열대성 유지제외) 3%상승, 종자류 -20%하락
- 주요 증가품목은 1차 코코아, 사탕수수 및 사탕무, 쌀, 직접 소비재는 신선과일, 인스턴트커피, 주류, 스낵류로 경기안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물량이 늘어남

-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제품군은 1차 농산물로 사료 -25%, 밀 -39%, 담배 -40% 등의 하락률을 보임. 중간소비재인 열대유지 -21%, 종자류 -20%, 직접 소비재는 주스류 -10%, 유제품 -33%, 신선육류 -19%등의 하락률을 보임

□ 2010년 3월 미국 수출동향 분석

- 2010년 3월의 미국 농림축산물 총 수출액은 30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
 - 1차 농산물인 대두를 포함해 벌크농산물, 사료용 곡물, 면, 중간소비재인 동물성유지, 당류, 밀가루 그리고 최종소비재인 유제품, 청과, 견과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함
 - 1차 농산물은 23% 상승, 중간소비재는 45% 상승, 최종소비재는 10%로 각각 증가함

□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US천불, %)

2009년 3월		2010년 3월	
금액	전년 동기대비	금액	전년 동기대비
55,439	-12.1	66,155	19.3

자료: FAS. USDA

□ 2010년 3월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

○ 한국산 농림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6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55백만 달러 대비 19.3% 상승함

- 벌크농산물은 전년도 84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로 66% 증가
- 중간재농산물은 전년도 568만 달러에서 645만 달러로 13%증가
- 소비재 농산물은 전년도 478만 달러에서 578만 달러로 21%증가
- 임산물(펄프, 종이 제외)은 전년도 106만 달러에서 51만 달러로 52% 하락

○ 주요 증가품목은 차류, 쌀, 가공과채류, 주류, 유제품, 스낵류, 당류로 증가함

- 가공과채류 : 냉동나물류, 냉동 밤류, 반찬류 등이 수입되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전통주류 : 참살이 막걸리, 이동막걸리, 국순당 막걸리 등 포장과 맛이 다양화 되면서 한인소비자들과 현지인들의 관심고조로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임
- 스낵류 : 최근 들어 쌀로 만든 쿠키류와 같은 건강스낵, 소라스넵과 같은 추억의 과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주요 감소품목은 견과류, 향신료, 과실류, 유스류, 원예작물 등이 급격히 감소함

- 배 : 4대 배 수출국가인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한국의 배 전체 배 수출은 29% 하락했으며 한국역시 19%하락함.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바나나, 사과와 같은 저렴한 과실류로 구매라인을 전환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주요 부류별/ 주요 4대 국가별 수입동향 >

(단위: US천불, %)

품목	국가	'08 금액	'09 금액	3월		
				'09 금액	'10 금액	%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캐나다	24,861,350	19,420,511	4,817,764	5,128,544	6.5
	멕시코	11,165,424	11,576,290	3,248,502	3,745,451	15.3
	중국	3,606,105	5,194,489	1,183,835	1,320,806	11.6
	칠레	2,706,218	2,651,847	1,088,492	1,094,433	0.5
	계	42,339,097	38,843,137	10,338,593	11,289,234	9.2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캐나다	6,852,344	4,530,467	1,023,607	1,283,005	25
	중국	2,854,944	2,320,199	506,176	591,259	17
	브라질	812,352	530,087	135,437	124,677	-8
	칠레	657,457	506,498	128,239	106,793	-17
	계	11,777,097	7,887,251	1,793,460	2,105,734	17
○ 벌크농산물전체	인도네시아	2,098,859	1,222,669	344,564	571,865	66
	캐나다	2,824,079	1,827,167	607,833	461,112	-24
	브라질	1,076,044	1,143,220	281,839	330,838	17
	태국	1,025,401	690,961	208,804	275,923	32
	계	7,024,382	4,884,017	1,443,040	1,639,739	14
- 사료용 곡물	캐나다	818,244	482,453	139,328	105,781	-24
	멕시코	10,909	8,393	3,553	2,343	-34
	핀란드	6,072	4,817	0	0	--
	페루	891	1,626	218	605	178
	계	836,116	497,289	143,099	108,729	-24
- 쌀	태국	341,227	370,728	101,892	108,975	7
	인도	125,442	113,562	22,118	25,215	14
	중국	24,570	4,679	1,159	915	-21
	파키스탄	30,525	21,214	4,485	4,469	--
	계	521,764	510,183	129,654	139,573	8
- 담배	브라질	304,063	308,046	87,417	63,475	-27
	터키	127,989	185,363	121,595	47,441	-61

(단위: US천불, %)

품목	국가	'08	'09	3월		
				'09	'10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대비
- 당류	캐나다	332,890	290,662	61,504	75,513	23
	멕시코	403,797	435,314	114,515	65,536	-43
	파테말라	80,784	66,028	21,404	19,987	-7
	브라질	62,876	30,058	4,771	5,593	17
	계	880,346	822,063	202,194	166,630	-18
○소비재 농축산물 전체	캐나다	9,510,287	8,737,494	1,995,947	2,198,142	10
	멕시코	9,419,596	9,775,435	2,782,150	3,339,031	20
	호주	2,163,640	2,028,394	487,947	413,682	-15
	이탈리아	2,462,803	2,213,405	470,228	513,701	9
	계	23,556,327	22,754,727	5,736,272	6,464,556	13
- 스낵류 (초콜렛포함)	캐나다	2,473,873	2,311,658	527,294	631,894	20
	멕시코	898,439	1,044,221	215,643	277,296	29
	독일	202,711	188,020	34,796	37,839	9
	중국	185,652	166,417	36,976	31,514	-15
	계	3,760,675	3,710,316	814,709	978,543	20
- 낙농제품 (치즈제외)	뉴질랜드	660,074	526,476	254,742	104,102	-59
	캐나다	106,308	86,530	18,494	23,857	29
	호주	103,183	81,742	26,007	17,791	-32
	인도	106,621	34,964	15,568	35,190	126
	계	976,186	729,712	314,811	180,940	-43
- 신선채소	멕시코	2,941,592	2,841,900	1,154,746	1,516,641	31
	캐나다	925,150	849,996	117,003	131,946	13
	페루	184,341	197,424	23,142	26,311	14
	중국	91,097	75,047	16,091	34,445	114
	계	4,142,180	3,964,368	1,310,981	1,709,344	30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멕시코	1,682,604	1,928,525	465,064	509,609	10
	칠레	1,245,144	1,251,298	760,320	807,045	6
	코스타리카	424,558	424,716	105,179	131,827	25
	캐나다	150,591	146,175	6,573	6,525	-1
	계	3,502,897	3,750,714	1,337,137	1,455,006	9
- 과일채소가공품	캐나다	1,156,286	1,087,202	272,224	253,201	-7
	중국	812,919	745,372	189,011	178,111	-6
	멕시코	807,692	810,722	229,535	226,039	-2
	태국	381,839	379,103	93,850	87,338	-7
	계	3,158,737	3,022,399	784,620	744,689	-5
- 주스류	중국	675,381	356,854	92,418	80,372	-13
	브라질	302,040	238,121	78,935	78,384	-1
	멕시코	206,337	173,062	50,596	64,041	27
	아르헨티나	214,670	141,53			

<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 >

(단위: US천불, %)

품목	'08 금액	'09 금액	3월		
			'09	'10	%
			금액	금액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254,210	249,656	55,439	66,155	19.3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5,082	3,918	883	488	-45
○ 벌크농산물전체	5,917	4,504	847	1,404	66
- 사료용 곡물	22	60	0	17	--
- 쌀	380	790	129	277	115
- 담배	95	0	0	0	--
- 차(허브차포함)	3,713	3,353	615	1,016	65
○ 중간재농축산물 전체	20,915	21,388	5,687	6,448	13
- 식물성기름(열대성유자제외)	14,995	17,400	661	376	-43
- 종자류	1,413	928	216	409	89
- 당류	1,091	892	123	305	147
○ 소비재농축산물 전체	222,296	219,846	47,840	57,792	21
- 스낵류 (초콜릿포함)	21,344	19,409	4,037	6,316	56
- 낙농제품 (치즈제외)	9,723	7,559	1,542	1,932	25
- 신선채소	7,794	7,976	2,560	2,335	-9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23,343	24,759	5,238	4,151	-21
- 과일채소 가공품	18,494	18,891	4,564	6,645	46
- 주류(와인파맥주)	5,312	5,815	1,065	1,434	35
- 원예작물/절화	2,378	1,199	332	356	7
- 커피(구운 것/인스턴트)	3,794	5,682	786	712	-10
- 향신료	2,678	2,787	769	837	9
- 주스류	2,097	2,527	416	439	5
- 견과류	1,042	3,586	571	459	-20
- 밥	992	3,260	485	426	-12
- 배	21,670	23,445	5,138	4,146	-19
- 포도	900	1,088	0	0	--
- 딸기(신선)	36	9	6	0	-
- 인삼(뿌리)	697	733	270	229	-15

자료: USDA BICO Report

해외시장동향

유럽

로테르담 aT

1. 현지시장 포커스

가. 유럽, 제 3국의 과일 및 채소 수입 감소

- 2009년 제 3국에서 유럽 지역으로의 과일 및 채소 수입이 전년과 비교하여 수입량을 기준으로 7%, 금액기준으로 8% 감소한 13.4백만 톤, 10.754백만 유로를 각각 기록함
- 과일은 유럽지역의 가장 중요한 제 3국산 수입품목으로, 작년 한해 수입량으로는 8% 감소한 11.1백만 톤, 금액으로는 9% 감소한 8.844백만 유로에 달함
- 유럽이 수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과일은 바나나로 작년 한 해 동안 4.5백만 톤 (-8%)을 수입하였으며 파인애플 880,534톤 (-5%), 오렌지 845,086톤 (-18%), 사과 691,193톤 (-14%) 그리고 포도 613,457톤 (-6%) 이 그 뒤를 이었음
- 2009년 한해 수입된 채소는 2008년보다 2% 적은 2.2백만 톤으로, 금액으로는 2% 감소한 1.909백만 유로로 집계됨
- 유럽 통계청인 Eurostat에 따르면 제 3국에서 유럽지역으로 수입된 주요 작물로는 토마토, 감자, 양파, 고추, 콩이 있으며 토마토는 2009년에 수입이 증가한 작물 중 하나로 물량으로는 11% 증가한 524,120톤이 수입된 반면, 감자는 14% 감소한 451,375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됨
- 이러한 제 3국으로부터의 과일 및 채소 수입의 감소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진 수입 증가 추세가 감소로 돌아섬

(자료: freshplaza.com)

나. 유럽연합, 감귤류 긴 뿔 딱정벌레 검사강화

- 유럽연합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감귤류 긴 뿔 딱정벌레 (the citrus long horn beetle, 학명 Anoplophora chinensis)의 숙주 식물에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이는 감귤류 긴 뿔 딱정벌레가 유럽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단풍나무, 감귤류 나무, 사과 나무 뿐 아니라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그리고 버드나무와 같은 다양한 낙엽성 나무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

- 또한 이 곤충이 서식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중국에서 수출되어 유럽연합 지역으로 유입되는 숙주 식물 마다 애벌레가 있는지 보는 샘플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이 감귤류 긴 뿔 딱정벌레는 유럽연합 내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주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발견되었으며 2010년 3월초에 중국의 두 개 묘목원에서 수입된 식물에서 딱정벌레가 발견되었음
- 이 해충이 유럽지역의 공원과 숲에 위협이 될 수 있고 과거 이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대대적인 값비싼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 유럽연합은 크게 우려하고 있음

(자료: freshplaza.com)

2. 시장동향

가. EU 농식품 소매업 유통 현황

-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의욕 및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소매업 유통현황이 2010년 3월에는 전월 대비 소매업의 거래량에 변화가 없으나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의 암시로 분석
- 품목별로 보면 식품, 음료, 그리고 담배 거래량은 전월과 전년과 비교하여 각각 0.3%, 0.6% 증가하였으며 비식품 품목의 거래량도 각각 0.2%, 1.4% 증가하여 전년 대비 거래량 감소 추세를 보이던 2010년 1-2월과 비교하여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식품, 음료, 그리고 담배 제품의 거래량 변동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덴마크가 전월대비 5.5%, 전년대비 4.4%로 증가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도 전월 및 전년대비 모두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전월 대비로는 각각 4.6%, 2.9%, 0.6%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로는 10.6%, 7.4%,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독일과 불가리아는 전월과 전년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독일은 전월, 전년대비 각각 2.4%, 2.6%, 불가리아는 1.0%, 11.6% 감소함

<2010년 3월 EU 농식품 소매업 유통 현황>

품목 및 국가	전월대비 (%)	전년대비 (%)
전 체	0.0	0.3
식품/ 음료/ 담배	0.3	0.6
비 식품	0.2	1.4
벨기에	0.6	-2.1
불가리아	-1.0	-11.6
덴마크	5.5	4.4
독 일	-2.4	-2.6
에스토니아	0.6	-7.0
스페인	0.8	1.7
프랑스	0.7	-2.0
라트비아	2.9	-7.4
리투아니아	4.6	-10.6
오스트리아	0.6	2.5
폴란드	2.4	-2.7
포르투갈	-2.8	1.2
루마니아	3.7	-4.3
슬로베니아	0.6	-1.7
슬로바키아	2.0	0.2
핀란드	1.0	7.4
스웨덴	0.7	2.8
영 국	0.6	2.5
노르웨이	0.0	2.5

(출처 :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나. 국가별 동향

□ 스페인

○ 생산동향

- 스페인 그란 카나리아(Gran Canaria) 동남부 지역의 토마토 작물이 나방 투타의 피해를 입어 농작물의 약 40%가 파괴되었으며 앞으로 손실이 50%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라 알데아(La Aldea) 지역은 새로 정비한 비닐 하우스 덕분에 이 나방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확물이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

○ 가격동향

- 스페인의 과일 및 야채 소매가격이 2010년 1/4분기에 2009년 동기간에 비해 15.7% 하락하였으며, 2009년 4/4분기와 비교했을 때 6.4% 감소
- 과일 및 야채 가격은 스페인 내에서도 도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엘바(Huelva)는 가격이 가장 낮은 도시로, 팜플로나(Pamplona)는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나 수준별 목표 시장 분류가 가능
- 또한 우엘바 외에 가격이 낮은 도시로는 Zaragoza, Jerez de la Frontera, Toledo and Cuenca, 사라고사 외에 가격이 높은 도시로는 Santander, Lleida, Soria, and San Sebastian이 꼽힘
- 2009년에는 과일 및 채소가격이 모든 도시에서 하락하였는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도시는 Valencia로 23.2%가 하락하였으며 Oviedo는 5.9% 하락하여 가장 적은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스페인에서 중간 규모의 슈퍼마켓에서 과일 및 채소 가격이 가장 저렴한 반면, 일반 시장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남. 가장 저렴한 곳과 비싼 곳의 차이는 최대 8% 이내

□ 영 국

○ 생산동향

i) 감 자

- 기후 조건에 의한 생산량 급감에 따라 하반기 가격 상승이 예상됨
- 영국과 프랑스 사이 잉글랜드 해협에 위치한 저지 섬의 기상 악화로 영국의 대표적인 감자 경작지인 저지 로얄 생산자(Jersey Royal growers)들은 50년 만에 최악의 감자 시즌을 맞게 될 것으로 예측
- 5월 현재 평년 감자보다 10배가량 작은 것으로 분석됨

ii) 딸 기

- 낮은 따뜻하고 밤에는 시원한 기후 덕분에 당도 높은 좋은 품질의 딸기를 수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영국 본토는 4월에 5회 이하의 강우 회수와 평균 40.5mm보다 훨씬 적은 10.1mm의 강우가 내려 1938년 이래 가장 건조한 4월을 보냄
- 영국 북부 지방인 스코틀랜드 몬트로스 (Montrose) 지방에서 재배되는 딸기의 경우 평년보다 일찍 수확하게 되어 딸기 공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유통 동향 : 영국 테스코, 태국산 신선 농산물을 수출, 2배 증대 목표

- 테스코는 향후 5년간 전세계에 퍼져 있는 테스코 매장인 글로벌 네트워크로 태국의 채소, 과일 그리고 육류제품 수출물량을 현재의 두 배(234억 바트)로 증대할 계획임
- 테스코측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테스코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되는 태국 제품의 금액이 작년보다 46% 상승한 117억 바트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태국의 경제, 정치적 혼란으로 태국 작물 수출이 19%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발표로서, 테스코는 태국 작물을 테스코 네트워크로 수출하여 두배 증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 새로운 접점이 개점함으로써 새로운 기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테스코 그룹은 또한 2-3년간 인도에서 테스코 하이퍼마켓을 운영할 파트너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태국 제품 매출을 올릴 계획임
- 새로운 테스코 로터스의 최고경영자인 크리스 부쉬 (Chris Bush)는 최근 수출 결과는 테스코의 태국 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태국 채소, 과일, 육류는 14개국에 있는 테스코 그룹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밝힘
- 태국 과일의 인기가 매년 올라가는 것은 소비자들이 태국과일이 매우 건강에 유익하고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함
- 영국에서 다른 태국 제품들도 테스코 매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특히 영국 소비자들은 태국의 상징인 보라색 양란(fresh purple orchids)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여 2009-2010에 테스코로 수출되는 태국 양란은 50% 가량 증가한 42백만 바트임
- 앞으로 수출금액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제품으로는 닭고기와 새우가 있음
- 테스코는 태국 제품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테스코 매장에서 “태국에서 온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a healthy and tasty from Thailand)”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인기 있던 태국산 망고, 용안 (longan), 람부탄 (rambutan), 리치 (lychee) 등을 대상으로 영국 소비자들에게 태국 과일의 선택법, 맛과 건강에 좋음 등에 대해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이 프로모션은 5월 한 달간 영국 전역의 500여개에서 진행될 예정임

3. 수출입동향

가. EU(27개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입 동향

□ 수 출

- 2010년 1월, EU 27개국의 전체 산업 수출 규모는 2009년에 비해 8% 증가한 816억 유로로, 이중 식품 및 음료의 수출은 45억 유로로 전체 산업 수출의 약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식품 및 음료의 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원자재, 에너지 및 화학제품의 수출 성장률이 10% 이상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 1월 유럽 식음료 수출 현황>

품 목	2009년 1월	2010년 1월	증가률
	금 액 (십억유로)	금 액 (십억유로)	
전 체	75.9	81.6	8%
식품 및 음료	68.4	62.1	-9%

(자료: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 수 입

- 2010년 1월, EU 27개국의 전체 산업 수입 규모는 2009년에 비해 0% 증가한 1,040억 유로로, 이중 식품 및 음료의 수입은 45억 유로로 전체 산업 수입의 약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식품 및 음료의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원자재, 에너지 및 화학제품의 수입 성장률이 3-6%를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낮으나 기타 공산품의 경우 -7%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유럽 내에서 외국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2010년 1월 유럽 식음료 수입 현황>

품 목	2009년 1월	2010년 1월	증가률
	금 액 (십억유로)	금 액 (십억유로)	
전 체	103.7	104.0	0%
식품 및 음료	6.0	6.0	1%

(자료: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 따라서 2010년 1월, 식품 및 음료 제품의 무역은 45억 유로 규모의 수출에 60억 유로 규모의 수입으로 15억 유로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16억 유로 적자를 기록한 2009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역수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나. 한국 농산물 수입 동향

□ 국가별 수입동향

- 2010년 3월 대 EU 국가별 수출규모는 네덜란드가 미화 6,686천불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었고, 다음으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순으로 나타남
- 물량 기준으로 보면, 네덜란드 (8.2%)를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두 자리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독일 (199.4%), 벨기에 (125.9%), 아이슬란드 (730.7%), 덴마크 (706.3%)는 세 자리의 증가율을 기록함
- 금액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 (-47.0%)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두 자리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냄. 특히 아이슬란드가 1,292.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독일 (199.4%), 이탈리아 (227.3%), 영국 (222.1%), 덴마크 (495.8%), 폴란드 (152.0%)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2010년 3월 한국 농림수산물 국가별 수출 현황>

국 가	2009년 3월		2010년 3월		증가율	
	물량 (kg)	금액 (USD)	물량 (kg)	금액 (USD)	물량	금액
네덜란드	3,335,635	4,429,010	3,607,734	6,934,880	8.2%	56.6%
스페인	1,302,540	2,856,486	1,922,030	4,183,902	47.6%	46.5%
독 일	520,945	1,288,357	2,956,009	3,857,143	467.4%	199.4%
이탈리아	634,594	1,082,404	1,166,437	3,542,170	83.8%	227.3%
영 국	483,937	1,051,481	833,557	3,386,781	72.2%	222.1%
프랑스	419,892	2,658,421	502,849	1,410,194	19.8%	-47.0%
벨기에	238,534	575,889	583,460	1,301,073	144.6%	125.9%
아이슬란드	99,926	65,720	830,124	915,186	730.7%	1,292.6%
덴마크	10,554	139,757	85,095	832,736	706.3%	495.8%
폴란드	179,143	236,837	344,283	802,155	92.2%	152.0%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 Kati)

□ 품목별 수입동향

- 2010. 3월 대 EU 한국 농림수산물의 수출규모는 2009년 3월과 비교해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44%, 69.8% 증가한 13.9백만kg, 총 29.1백만 달러
- 이 중 농산물과 수산물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0.9%와 60.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0.9%, 10.8%로 성장에 그침
- 물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임산물과 수산물이 50% 이상의 높은 성장
- 농산물의 경우, 물량 증가율 (31.1%)에 비해 금액 증가율 (80.9%) 이 높고 축산물은 물량 증가율 (21.7%)에 비해 금액 증가율 (0.9%)이 매우 낮음

<2010년 3월 한국 농림수산물 수출 현황>

품 목	2009년 3월		2010년 3월		증가율	
	물량 (kg)	금액 (USD)	물량 (kg)	금액 (USD)	물량	금액
합 계	9,673,112	17,118,755	13,933,071	29,064,607	44.0%	69.8%
농산물	6,519,946	9,419,752	8,549,576	17,037,662	31.1%	80.9%
축산물	41,332	255,662	50,303	258,070	21.7%	0.9%
임산물	171,479	395,412	257,959	437,933	50.4%	10.8%
수산물	2,940,355	7,047,929	5,075,233	11,330,942	72.6%	60.8%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 Kati)

□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 면류 제품이 미화 1,729,261달러 규모로 가장 많이 수출됨. 미화 832,914 달러 수출규모를 기록한 당류, 778,181 달러의 채소류가 그 뒤를 이음
- 면류는 금액 기준 수출규모가 가장 크고 전년 3월 대비 0.3%가 감소, 수출 물량은 0.2% 증가. 중국산 면류의 수입 증가와 현지 식품업체들의 아시아 스타일의 다양한 면류 출시에 따른 경쟁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채소류는 전년에 비해 물량 기준 160%, 금액 기준 180.3% 증가. 특히 채소 주스와 김치 제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176.6%, 184.9% 증가. 이는 현지인들의 채소 주스에 대한 웰빙 이미지 형성, 그리고 중국계를 포함한 현지인들의 김치 제품에 대한 인기 상승에 기인함
- 차류 제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저가 차류 제품의 증가와 홍차와 허브티를 즐기는 현지 차 문화로 전년에 비해 금액 기준 98.7%가 감소함

<2010년 3월 한국 농림수산물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품 목	2009년 3월		2010년 3월		증가율	
	물량 (kg)	금액 (USD)	물량 (kg)	금액 (USD)	물량	금액
과실류	9,837	35,588	95,767	80,741	873.5	126.9
과즙음료	2,456	2,683	92,045	68,800	3,647.8	2464.3
채소류	266,804	277,619	693,659	778,181	160	180.3
김치	14,073	48,951	44,156	139,450	213.8	184.9
채소주스	235,517	162,381	629			

4. EU 경제 동향

□ 유럽 경제동향

- 2010년 1/4분기 중 16개 유로(Euro) 사용국가의 GDP는 2009년 4/4분기 대비, 0.2%가 증가하여 세계경제규모의 21.88%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GDP 성장률 0.2%는 2009년 4/4분기에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것에 비해 높은 수치로, 빠른 속도로 유럽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유럽의 지도자들이 그리스 경제위기가 전 유로화 사용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조 규모의 구제책을 제시함에 따라 1/4분기에 이와 같은 빠른 회복세를 보임
- 한편, 유로의 가치하락으로 유럽산 제품이 더욱 경쟁력을 가지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서비스 및 제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산업생산은 1/4분기 평균 3.83% 증가했으며 특히 3월에는 2월에 비해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산업신뢰지수(Business Confidence Indicator)도 96.6으로 89-94에 머물던 지난 2009년 4/4분기보다 증가함
- 그러나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 지수(Consumer Confidence Indicator)는 지난 4/4분기와 비슷한 -16.83을 기록함

< 주요 경제지표 >

이자율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증가율	실업률	경상계정	환율
1%	0.2%	1.50%	10.0%	7	1.2358

(자료: TradingEconomics)

< 참고 >

‘10. 5월 주요 품목의 대 EU 수출 동향

□ 총괄 : (‘09. 5) 92,949천불 → (‘10. 5) 123,757 (33.1% 증가)

- 농식품 : 면류, 음료류 등 주력 수출품목의 안정적인 수출 성장세와 식품 첨가제의 수요확대로 39.3% 증가한 79,121천불
- 수산물 : 참치, 오징어, 어류필레 등의 수출이 확대되어 23.4% 증가한 44,636천불

면류(라면류)

- 수출실적 : (‘09.5) 5,926천불 → (‘10.5) 6,808천불 (14.9% 증가)
 - 라면(4,043/ 10.8%증), 국수(1,294/ 48.5%증), 만두(784/ 32.9%증)
- 한국산 라면을 수입하려는 바이어가 영국(ASDA), 독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늘고 있고, 현지인을 중심으로 한 생면의 수요 증가 추세

채소류(알로에음료 포함)

- 수출실적 : (‘09.5) 2,497천불 → (‘10.5) 2,581천불 (3.4% 증가)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동유럽 등의 주류마켓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품목으로서, 각종 박람회에서 전략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

스낵류

- 수출실적 : (‘09.5) 1,014천불 → (‘10.5) 1,004천불 (1.0% 감소)
- 주류마켓 진입과 동양계 마켓에서 새우깡, 빼빼로 등의 수요 증가 추세

소스류

- 수출실적 : (‘09.5) 747천불 → (‘10.5) 986천불 (32.0% 증가)
 - 간장(193/ 18.9% 증), 고추장(390/ 59.8% 증)
- 간장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일본산과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지도 증가, 특히 샘플가 울초부터 독일 지역에 물량 공급 확대. 고추장은 핫소스의 인기 증가 추세

김치

- 수출실적 : ('09.5) 212천불 → ('10.5) 676천불 (219% 증가)
- 지난해 연말부터 영국 등 교포바이어가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수입 대체

버섯류

- 수출실적 : ('09.5) 1,548천불 → ('10.5) 1,280천불 (17.3% 감소)
- 새송이(707/ 16.8%증)는 수출단가 상승과 '09년 말부터 스페인시장 판로개척으로 증가, 아시안들이 주로 소비하는 팽이버섯(110/ 29.3%감)은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수출 감소세

인삼류

- 수출실적 : ('09.5) 545천불 → ('10.5) 912천불 (67.2% 증가)
 - 백삼정(250/ 7.7%증), 백삼조제품(231/ 251%증), 인삼차(116/ 141%증)
-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백삼제품, 인삼차의 수요 증가추세

선인장

- 수출실적 : ('09.5) 760천불 → ('10.5) 741천불 (2.4% 감소)
- 금년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여 수입 주문량을 적기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 완성형 선인장으로 고부가가치화하여 대체

수산물

- 수출실적 : ('09.5) 36,165천불 → ('10.5) 44,636천불 (23.4% 증가)
 - 어류(35,701/20%증) : 참치(13,634/10.1%증), 냉동갈래(8,747/26.4%증), 생선묵(1,922/19.4%증)
 - 갑각류(2,642/47.7%증) : 게살(879/39.2%감), 새우(264/688%증)
 - 연체류(4,740/60.7%증) : 바지락(2,318/32.4%증), 오징어(1,358/14.3%증), 굴(473/20%감)

< 주요 품목별 대 EU 수출실적 >

(단위 : 천톤, 천불)

구 분	2009	2009.1.1~5.25		2010.1.1~5.25		증감율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계	259,101	51,480	92,949	58,720	123,757	14.1	33.1
농산물	154,138	35,314	54,200	41,125	75,809	16.5	39.9
축산물	3,166	187	982	197	1,077	5.4	9.7
임산물	4,799	787	1,602	1,320	2,234	67.8	39.4
농식품	162,103	36,288	56,784	42,642	79,121	17.5	39.3
<신선>	20,710	4,108	6,783	5,069	8,095	23.4	19.3
김치	840	67	212	213	677	220	219
인삼류	2,626	13	546	16	913	29	67
선인장	742	69	760	70	742	1	△2
버섯류	3,563	358	1,549	313	1,280	△13	△17
<가공>	141,393	32,180	50,000	37,573	71,026	16.8	42.1
라면	4,044	1,308	3,650	1,436	4,044	10	11
간장	193	168	163	212	193	26	19
고추장	390	122	244	168	390	38	60
채소음료	2,581	3,300	2,497	3,488	2,582	6	3
과자류	2,494	281	1,015	311	1,005	11	△1
수산물	96,998	15,192	36,165	16,078	44,637	5.8	23.4
바지락	2,318	152	547	525	2,318	245	324
김(마른김)	117	28	56	31	117	10	109
굴(밀폐용기)	153	14	111	24	153	72	37
오징어	1,358	731	1,188	314	1,358	△57	14
참치	13,634	5,092	12,384	4,894	13,634	△4	10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 kati.net